

특집논문

여성 SF 소설의 테크노피아와 소수자 문학*

김윤정**

-
- I. 서론 : 한국 여성 SF 문학과 포스트휴먼 주체
 - II. '모성'의 보편적 개념 해체와 재구성
 - 1. 기계와 인간의 공감각(synesthesia)
 - 2. 과학기술의 침투(impregnation)
 - III. '젠더'의 창조와 선택 가능성
 - 1. '혼종적인 것'으로의 접속(connection)
 - 2. 생물학적 조건들의 변형(transformation)
 - IV. 결론 : 윤리적 실천을 위한 대안적 미래
-

I. 서론 : 한국 여성 SF 문학과 포스트휴먼 주체

만약 우리가 유토피아를 어떤 하나의 가상적인 균질의 특징¹⁾을 갖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맥락에서의 유토피아는 오늘날의 SF 문학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는 SF 문학에서의 유토피아는, 낭시의 사유를 가로지르는 '무위(無爲)'가 언제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5816).

**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조교수.

1)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역, 민음사, 1995, 11-15쪽 참조.

유효하고 모든 단수적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이형(異形)’이 서로 공존하며 접촉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²⁾ 여기서 유토피아는 어떠한 특정한 시대나 장소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전과는 다르게’와 같이 고정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단일한 실체나 동일성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 그 자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된 기술과학시대의 윤리적 공동체를 ‘테크노피아’라고 명명한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SF 문학의 테크노피아는 어떤 형태로 상상되고 있는가? 기술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한 인간을 요소로 구성되는 테크노피아의 양태와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여성 SF 문학의 테크노피아는 낭시의 공동체를 사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성 SF 문학의 테크노피아에서 공동체는 ‘우리 사이’라는 관계 그 자체, 혹은 ‘우리 사이’의 소통 그 자체이며 우리를 초과하여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든 그것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테크놀로지로 인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본질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반성과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여성 SF 문학은 테크노피아의 재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SF 문학의 포스트휴머니즘은 소수자에 대한 ‘말 걸기’로 구체화된다. ‘말 걸기’는 스피박(Gayatri Spivak)이 제시한 실천적 연대의 방법이다. 소수자를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놓인 역사적 환경과 배경을 문제 삼음으로써 소수자의 삶을 구체화한다.

2) ‘우리, 지금’은, 우리가 주어진 하나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현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어떤 결정된 전개 과정 한가운데에서 결정된 한 단계로 이해할 수 없다.(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역, 인간사랑, 2010, 248-249쪽 참조.)

초고도의 기술과학이 발전된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조건과 기능을 이해하고 여성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말 걸기’를 통해 여성의 삶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여성 SF 문학에서 ‘사이보그-되기’의 주체들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시도한다. 문화적으로 타자화된 소수자들에게 각자의 자리를 구성하게 하고, 각자의 구체적 삶을 서사화함으로써 소수자와의 관계, 소통, 연대를 보여준다. 인간중심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하고 규정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상이한 정체성이 체현되는 세계로서의 인간을 상상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여성 SF 문학은 기존의 2000년대 문학 담론의 영역 바깥에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검증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2000년대 문학은 “대결하기보다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존재와 현실을 파고들기보다 그 표면 위를 미끄러져가고, 다른 세계를 꿈꾸기보다 자신의 무력함을 속으로 삭이며 지레 체념해버리는 문학”³⁾이라거나 “2005년 이후 등단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고립과 자폐를 선택적인 것처럼 수궁하고(마치 지하 생활자처럼), 행위 대신 망상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고(세계에 대한 사유의 우위), 그 망상 속에서 이런저런 방식의 변신을(그레고르 잠자처럼) 감내한다.”⁴⁾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여성 작가들은 ‘여성’으로서의 현실을 치열하게 탐구하고 기술과학시대 인류의 미래를 확장된 현실 세계, 분열하는 사유, 변신하는 몸 등으로써 문학의 정치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전의 SF 문

3) 김영찬, 「2000년대, 한국문학을 위한 비판적 단상」, 『창작과 비평』, 2005년 가을호, 309-310쪽.

4) 김형중, 「병든 신, 윈도즈Windows 속의 영웅」,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문학과지성사, 2013, 200쪽.

학이 상대적으로 외국의 영향을 강하게 투영하고 있다면, 2000년대 이후의 SF 문학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현실에 대해 천착하는 경향이 짙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 시대정신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⁵⁾ 이에 대해 박인성⁶⁾은 SF가 가진 다형장르적 성격이 어떤 장르보다도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폭력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대안적 가설을 제공하기 위한” 질문들을 펼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인간을 새롭게 사유하기 위한 과정 자체를 발견함으로써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적 접근법의 상투성을 벗어나 효과적으로 대안적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시대적 장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SF 문학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이론과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국문학 내에서는 SF 문학을 비주류 문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더욱이 2000년대 이전의 한국 SF 문학에서는 SF 서사의 클리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일본의 문화적 풍토나 정서가 반영되기도 해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논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SF 문학은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한국의 특정 시대와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주류 장르문학으로 소외되었던 SF 문학에 대해 학술적 연구와 검토의 필요성을 자극하며 연구자의 관심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SF 문학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고, 더욱이 여성 SF 문학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⁷⁾ SF 문학이나 포스트휴머니즘을 연구하는 과정에

5) 고장원,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북스, 2016, 205쪽.

6) 박인성, 「다형 장르로서의 SF와 SF 연구의 뒤늦은 첫걸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289-298쪽 참조.

7) 지금까지 여성 SF 문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적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두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서 단편적으로 여성 SF 문학이 인용되고 분석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한국 여성 SF 문학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몇몇 선행연구는 본 연구를 기획하는 데에 문제적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한국 SF 문학에서 동시대적 감각과 해방적 상상력을 드러내는 작품의 유효한 의미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노대원의 「한국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⁸⁾과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 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⁹⁾은 한국 SF 문학의 흐름과 그 역량을 가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은 도미니크 바뱅의 포스트휴먼 이론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양상을 분석한 글이다. 박민규와 윤이형, 김이환의 단편소설을 분석하면서 전통적 인간관을 전복하고 역전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포스트휴먼의 양면성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 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은 SF 문학이 포스트휴먼의 대중적 이미지와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지향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본다. 또한 포스트휴머니즘

2020, 36-62쪽.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 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5쪽.

김윤정, 「테크노사피엔스(Technosapience)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 - 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5호, 우리문학회, 2020, 7-36쪽.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7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0-153쪽.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 - 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05-139쪽.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 - 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0-35쪽.

8) 노대원, 「한국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 『비교한국학』 23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9) 노대원,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 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 『비평문학』 6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은 “인문학과 과학의 경계가 어물어진 시대의 학제적 담론”이기 때문에 포스트휴머니즘 비평이 SF 비평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과 논리는 SF 문학 장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주요한 관점과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성과가 크다.

김윤정의 「LGBT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의 상상력과 수행성」¹⁰⁾과 「테크노사피엔스(Technosapience)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¹¹⁾은 SF 문학과 소수자 문학의 관계를 구성하고 의미화 하는 데에 큰 기반이 되었다. 「LGBT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의 상상력과 수행성」에서는 이원론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주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윤이형과 김이환, 이종산의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을 임신이나 출산, 양육 등 억압적이고 성별화된 여성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주체로 이해하였다. 연구자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몸의 재구성인 물질적 몸에 강제된 이념과 규범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나아가 「테크노사피엔스(Technosapience)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에서는 기술과 인간의 조합에서 보다 반성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원론적 경계를 넘어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학적 시도는 결국 인간에 대한 윤리적 관점, 연대적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의도적인 신체 변형과 젠더의 선택 가능성은 젠더가 사라진 세계를 상상하지만, 결국 문학은 인간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에서 SF 문학의 의의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서승희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 한국 여성 사이언

10) 김윤정, 「LGBT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의 상상력과 수행성」, 『이화어문논집』 48호, 이화어문학회, 2019.

11) 김윤정, 「테크노사피엔스(Technosapience)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 - 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5호, 우리문학회, 2020.

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¹²⁾는 윤이형, 김보영, 정소연을 대상으로 여성 작가의 SF 문학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형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소설에서 여성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재현되지만, 포스트휴먼 주체로서 새로운 실존과 윤리, 긍정의 정치학을 구현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문학이 페미니즘 서사의 관점에서도 독자의 사고와 인식, 행위에 강력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참조가 된다.

비평적 담론으로는 인아영의 「젠더로 SF하기」¹³⁾와 정은경의 「SF와 젠더 유토피아」¹⁴⁾를 주목할 만하다. 「젠더로 SF하기」는 SF 문학이 젠더에 대한 다양한 사고실험을 통해 생물학적인 성차를 전복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의 SF 문학은 미러링과 레즈비언 사이보그를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위계는 물론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위계 관계를 전복하며 폭력과 억압적 구조를 폭로한다. 이 글은 현재 한국 문학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SF 문학의 서사에 내재하는 해방적 가능성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SF 문학의 유효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SF와 젠더 유토피아」는 SF 장르의 상상력이 현실의 곤궁과 결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성 작가들의 서사적 상상력을 유의미하게 살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여성 SF 문학을 다양한 젠더 해체의 방식으로 페미니즘적 사유와 결합하면서 SF 문학의 저항성에 여성의 해방, 나아가 인간의 유토피아를 기획하는 서사로 분석하였다.

이상에서와같이 한국문학 내부에서 SF 문학에 대한 정밀한 해석과

12)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77호, 2019, 130-153쪽.

13)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모음』 42호, 자음과모음, 2019, 46-58쪽.

14) 정은경, 「SF와 젠더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42호, 자음과모음, 2019, 22-35쪽.

분석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상당수의 논의는 포스트휴먼과 포스트 휴머니즘, 그리고 포스트바디와 포스트젠더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SF 문학에 내재된, 미래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경계와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SF 문학의 저항성과 전복성도 서사적 전략으로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여성 SF 문학을 중심으로 하이테크놀로지 시대가 여성과 젠더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의 여성 SF 문학은 젠더의 가상적 재구성에 대한 SF의 잠재력과 차이와 다양성을 재현할 SF의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는 SF 장르가 사회 변혁적인 전복적 상상력을 서사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연한 장르라는 특징을 잘 반영한다. 여성 SF 작가들은 SF의 장치들을 통해 젠더적 폭력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투명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가부장적 상황들에 대한 효율적인 비판과 성찰로 작용한다. 또한 젠더에 대한 이분법적 사유와 강제적 규범들을 해체하고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를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 SF 문학에 재현된 젠더 혁신적 여성 주체를 분석하고 이들이 소수자로서의 자기를 재의미화하는 양상과 재구성하는 방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SF 문학의 특수성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소수자 문학으로서 SF 문학의 문학적 위상을 제고(提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해러웨이는 기술의 발전이 ‘여성’이라는 범주의 해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다. 최근의 한국 여성 SF 문학은 그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사실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여성 SF 문학이 재현하는 사이보그

의 전복적 상상력을 볼 수 있다. 물리적 신체를 초월하게 되는 사이보그 여성 주체는 ‘여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탈피함으로써 동시에 타자, 객체라는 소외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역사적 규범 밖의 다른 대상으로 자기를 재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SF 문학의 테크노피아를 구성한다.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로써 포스트휴먼을 상상한다면, 헤일즈의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에서 포스트휴먼은 실체를 가진 존재이기보다는 일종의 추상적 관점으로 정의된다. 헤일즈에 따르면 포스트휴먼 주체는 “혼합물,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¹⁵⁾이다. 본 연구에서 포스트휴먼은 헤일즈의 정의를 따른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인간과 물질, 인간과 자연 간의 경계가 무화되고 관계가 재구성되며 횡단적으로 구성되는 주체이다. 따라서 본고는 물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몸,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을 벗어나 탈신체, 탈인간의 영역에서 주체 혹은 주체성을 재구성(재구상)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2000년대 여성 SF 문학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은 김초엽의 〈관내 분실〉, 김하울의 〈마더 메이킹〉, 아밀의 〈로드킬〉, 이산화의 〈아마존 폴리〉이다. 이들 작품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여성 SF 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문학적 성과와 대중적 관심을 모두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작품들이다. 지금까지 이들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단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정치하고 세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성과를 밝히는 연구는 본 연구의 도전적인 시도라고 하겠다. 최근의 여성 SF 문학은 성차별의 역사가 각

15) 캐서린 헤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허진 역, 플래닛, 2013, 25쪽.

인된 여성의 몸을 테크놀로지와 결합함으로써 기능적 인간으로의 향상보다 사회 구조적 패러다임의 변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성과 젠더, 인종과 장애를 인간의 본질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지속하는 사회에서 과학기술을 경유하는 인간의 기능적 향상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소외와 혐오, 차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를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의 여성 SF 문학은 ‘사변 소설(Speculative Fiction)’¹⁶⁾로도 볼 수 있다. 사변 소설은 과학소설의 지평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넓힌 개념이다. 이는 과학소설의 개념을 좀 더 유연하게 한 것으로 굳이 자연과학을 모티브로 하는 종래의 과학소설만이 아니라 인류의 인식 범위를 넓혀주는 소설을 모두 포함하는 과학소설이다. 과학을 작품의 기본 구성 원칙으로 삼기보다는 작가의 비판적 사고를 확장하고 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성 SF 문학은 과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문학적 상상력으로써 가늠해본다. 여기에 여성이라는 자의식을 뚜렷이 드러내며 여성의 문제의식을 치열하게 부각한다. 이때 여성 SF 문학의 세계는 변화와 혁신을 전제로 한다. 본고가 선정한 작품들은 불가능을 실현하고 시험한다는 SF의 장르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젠더와 관련한 다양하고 전복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불식하고, 젠더와 관련된 편협한 인식론을 무력화하며 나아가 젠더를 없애려는 시도으로써 현대 사회의 구조적 갈등과 편견, 혐오를 문학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들은 21세기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문학의 정치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16) 고장원, 『SF란 무엇인가』, 부크크, 2015, 240-241쪽 참조.

이들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학술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다. 먼저 사이보그 여성 주체를 분석하기 위해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주체’와 헤일즈의 ‘포스트휴먼 주체’, 마지막으로 주디 와이즈먼의 ‘테크노페미니즘’ 이론에서 도움을 얻을 것이다. 1985년에 발표된 도나 해러웨이(D. Haraway)의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A Manifesto for Cyborg)」은 젠더와 계급, 인종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따른 권력 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사이보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주체는 인간과 기술과학의 결합체로서 인간과 동물, 기계와 자연물 등의 경계를 해체하는 것으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을 구현한다. 포스트휴먼은 근대 이성에 기반한 계몽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사유와 물질적인 몸의 존재성을 탈피하는 주체이다. 이와 같은 경계의 해체와 비고정성, 규범화된 젠더를 교란하는 방식은 휴머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횡단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헤일즈는 포스트휴먼의 결정적인 특징을 비-생물적 요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에서 찾는다. 그녀는 탈-신체화된 자율적 의식의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주체가 아니라, 체현의 물리적 구조에 의거하여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함께 작동하는 ‘분산인지 시스템(distributed cognition system)’을 포스트휴먼 주체의 모델로 제시한다.¹⁷⁾ 주디 와이즈먼 역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그것들의 네트워크화된 성격을 여성 해방의 잠재력으로 이해한다. 와이즈먼은 미래 기술과학 시대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주체성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동시에 지금까지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과 결합함으로써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과학기술을 여성이 전유하고 확장함으로써 여성

17)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아가넷, 2017, 217쪽.

해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과학기술 시대에 젠더에 대한 규범화된 관념과 인식을 해체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있는 여성 SF 문학을 중심으로 테크노피아를 고찰하고 소수자의 구체적인 삶이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여성과 젠더를 통제하고 규율화하는 과학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하이테크놀로지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이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또 스스로 하이테크놀로지와 결합하는 포스트휴먼 주체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모성’의 보편적 개념 해체와 재구성

1. 기계와 인간의 공감각(synesthesia)

헤일즈(N. Katherine Hayles)는 정보 신체로써 물리적 신체의 말소 즉 탈신체화 가능성을 제기한다. 헤일즈는 지금의 기술과학 사회에서 매우 함축적인 의미의 몸을 상징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이론가이다. 테크노바디로 제시되는 이 신체들은 물리적 토대를 가진 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로서 존재하는 가상 신체에 이르기까지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기능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과학의 물리적 환경을 토대로 인간과 기계의 결속, 보완, 삽입, 추가 등의 방식으로 구현되는 인간상이며 나아가 우리 삶의 본질과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즉 인간 존재의 총체적 변혁을 내포하는 존재이다. 포스트휴먼의 ‘포스트’가 ‘~이후의(after)’ 혹은 ‘~다음의(next to)’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된다는 정의를 고려할 때, 여성 SF 문학에 재현된 포스트

휴먼은 새로운 인간 신체의 구현과 함께 윤리적 차원에서 다른 세상을 지향하는 목표를 보여준다.

김초엽의 <관내 분실>에서는 ‘엄마’라는 이름에 가려진 여성 개인의 삶을 구체화 한다. 출산, 육아의 일상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여성 인물들을 SF 서사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엄마’로 호명됨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소외당하는 여성, ‘엄마’와 ‘여성’, ‘모성’과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¹⁸⁾ 된 사회이다. 다만 사회 윤리적 근거로써 인간이 죽은 뒤에야 마인드를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고인(故人)의 기억과 행동 패턴은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서 저장되고 도서관에 보관된다. 사망 이후에도, 즉 물리적 신체가 소멸되더라도 인텍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홀로그램으로써 재현되는 테크노바디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물질적 몸을 떠남으로써 얻는 자유로움은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즉 젠더와 인종의 육체적 체현에서 도피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¹⁹⁾ 물질적 몸을 떠남으로써 몸에 각인되었던 억압적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엄마’의 경우는 사후(死後) 마인드 업로딩에는 동의하되, 누구도 자신의 정보 신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한다. 비록 도서관 내부에 보관되더라도 그 공간에서조차 자신의 존재성을 자발적으로 상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서관 내부에 존재하되 부재로 기록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철저하게 소멸되기를 선택한 것이며, 이는 오히려 존재했으나 사회와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재했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저항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8) 김초엽, <관내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224쪽.

19)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 김경례 옮김, 아르케, 2012, 204쪽.

딸 ‘지민’에게 인덱스 상실이라는 엄마의 부재는 새로운 형식의 모성 부재,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식된다. 현재 임신 중인 ‘지민’은 태아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는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이 엄마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민을 낳은 후 엄마는 산후우울증을 겪었고, 어린 남매와 엄마를 방치했던 아버지로 인해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지민에게 엄마는 언제나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엄마’일 뿐이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원래 없었던 존재처럼 사라져 가족들로부터 영원히 고립되는 것을 선택한 엄마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보로 존재하는 엄마를 직접 만나보는 것이다. 정보로 존재하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는 엄마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엄마의 이름, ‘김은하’였다. 두 번째는 엄마가 즐겁게 했던 일, 직업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김은하라는 이름과 ‘북디자이너’라는 엄마의 ‘정보’는 정보 신체로 변형된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덱스가 되었다.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그러나 한때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하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김초엽, 〈관내분실〉, 266-267쪽)

공간 속에서 은하는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아 있던 때에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문득 떠올린 것은,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

이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 같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죽었다. 여기에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다.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다.

(김초엽, 〈관내분실〉, 270쪽)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에 더욱 방점을 찍어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감성이나 관계에 중요점을 둔다. 이 작품에서 인간 ‘지민’과 사이보그 ‘엄마’의 교감은 인간과 정보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종의 감각으로 나타난다. 탈신체화된 엄마의 몸을 인식하는 ‘지민’의 감각은 인간이 물리적 신체를 통해 느끼는 감각과 정서의 범주를 넘어서 공유와 공감이라는 정서적 차원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는 인간의 감각적 신체로 수용되는 자극보다 확장된 개념의 감각과 감정이 융합되는 양식이다.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과학의 양식들은 상호 감각성(intersensoriality), 다양태성(multimodality), 다매체성(multimediality)과 같은 디지털 기능에 의거해 새로운 존재감을 발하는 ‘감각의 세계’를 창출한다.²⁰⁾ 특히 이 작품에서 홀로그램인 엄마와 인간인 지민의 경우처럼, 포스트휴먼의 상호감각성은 정보 과학기술이 적용된 정보 신체와 인간 사이의 상호감각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민은 비로소 엄마라는 여성에 종속된 몸이 아닌 자유로운 몸으로서의 ‘김은하’를 대면할 수 있었고, 기계와 인간의 공감각(synesthesia)을 통해 모성의 보편적 개념을 탈피

20) 김문조, 「감각과 사회: 시각 및 촉각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한국영상문화학회, 2011, 14쪽.

할 수 있었다.²¹⁾

이와 같은 포스트휴먼 주체가 공유하는 상호 감각성은 다양한 감각 기관의 혼종적 양상이기도 하지만 물질과 신체, 정보와 인간, 감각적 수용과 공감적 수행 등 다양한 디지털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새롭게 경험되는 ‘감각적(sensual)’ 현상을 의미한다. 상호 감각성의 혼종적 양상은 사이버 세계 내의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포스트휴먼 주체, 즉 탈신체화된 정보-신체와의 접촉 및 소통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 과학기술의 침투(impregnation)

테크노페미니즘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여성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신뢰한다. 기술에 대한 남성적 특성을 비판하는 비판적 접근보다는 기술과 여성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접근방식을 택함으로써 포스트휴먼 주체로서의 여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테크노페미니즘에서의 여성은 새로운 정체성과 가상 젠더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인간 향상 기술(human enhancement technology)에 따른 인간 본성의 변화를 시도한다. 이는 트랜스휴머니즘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방향에 근접해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지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을 하이테크놀로지으로써 크게 향상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능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의 품위와 정체성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조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redesigning the human condition)”²²⁾ 가능성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다.

인간 조건을 새롭게 디자인(redesign)하는 것은 기술과의 결합, 보완, 대체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이보그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여성

21) 이수안, 『테크노 문화풍경과 호모 센수스』, 북코리아, 2018, 80-82쪽 참조.

22) 이수안, 앞의 책, 133-134쪽 참조.

SF 문학은 인간의 기능적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을 통해 여성성의 모순적 관습을 전복하고자 한다. 특히 모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신성화하며 출산, 양육의 책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인간의 재구성, 즉 사이보그로의 변신으로써 효과적으로 재현한다. 김하울의 단편 소설 〈마더 메이킹〉은 모성이 본성에서 기인하는가의 문제와 모성에 필요한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여성에게만 강제되는 모성을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내파(內波)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력이 높은 작품이다. 인간의 감정을 약품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모성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강제되어야 하는가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바이오테크 신체로써 인간 신체의 기본 조건을 자유롭게, 혹은 인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때 인간의 몸은 더이상 자연적 신체가 아니다. 인위적인 호르몬 조합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조건은 얼마든지 새롭게 디자인된다. 인간의 신체에 과학기술이 침투(impregnation)함으로써 포스트휴먼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호르몬 상품화는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성과를 높이려는 시대적 욕망의 결과물이다. 상품화된 호르몬제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성취감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흉악범들에게는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고통을 주고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죄책감 호르몬제를 투여한다. 나아가 심각한 저출산시대에도 불구하고 유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 방임, 살인, 유기 등의 범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엄마들을 위한”²³⁾ 호르몬제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헌신과 희생을 하기 쉽도록 만

23) 김하울, 〈마더 메이킹〉, 『우리가 먼저 가 볼게요』, 에디토리얼, 2019, 117쪽.

들어 준다는 점에서 개발된 ‘마더후드 메이킹’ 호르몬이 결국 여성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메이드 메이킹’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성이란, 여성만의 소유물이 아니야. 새끼같이 연약한 것을 연민하고 보호하려는 헌신과 인내야. 인류 공통의 감정이지.”

(중략)

“하지만 실제로 이걸 주입하게 될 대상들은 여자들이지.”

(중략)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 상상해봐. 이 감정 호르몬제를 맞게 되면 말이야. 자신의 아이를 끔찍하게 위하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는 헌신이 준비 태세에 있고, 인내심이 강철처럼 강해지며, 아이를 물심양면으로 보호하고 키우게끔 양육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을 조종하게 되지. 어떨까, 레시피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나?”

(김하울, 〈마더 메이킹〉, 93-94쪽.)

호르몬 조합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재디자인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와같이 인간, 인종,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은 기술과학의 발달을 통해 생명 통치를 더욱 강력하게 할 위험도 있다. 기술과 접목하여 몸을 재구축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능적으로 향상된 바이오 테크노바디가 문화 정체성의 재구축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전국 가임기 분포도” 및 “난소 나이 분포도”를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은 매년 난소 나이를 검사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검사를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²⁴⁾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결탁한 생명

24) 김하울, 앞의 책, 103쪽.

정치 권력은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 몸을 더욱 강력하게 분류하고 통제하며 강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기술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주체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학의 발전이 실제 여성의 삶과 젠더 정체성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접근해야 한다. 생명공학 기술은 그 자체로써 여성에 대한 혐오와 젠더 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윤리적 차원의 포스트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통한 여성의 삶의 변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

마더 메이킹을 조제한 ‘밥’의 아내, ‘리’는 임신기간에 이어졌던 우울감이 출산 후 양육 과정에까지 이어지면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밥’은 ‘리’에게 마더 메이킹에 대해서 설명하고 ‘리’의 현재 상태를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호르몬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밥’과 함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던 ‘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성 호르몬제’라는 이 호르몬제의 목적 자체가 오류임을 주장한다. ‘여성’이 아닌 ‘사람’을 위한 호르몬제여야 하기 때문이다. ‘리’는 자신의 생각을 ‘밥’을 통해 구현한다. ‘밥’에게 ‘마더메이킹’의 베타버전을 주사하고 육아 방식과 태도에 대한 그의 획기적인 변화, 즉 모성적 감성의 생성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해리웨이는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여성의 새로운 역할을 대비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리웨이가 강조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써 의사소통의 방식을 확장하고 이를 여성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체성이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됨으로써, 또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자기 재현을 시도함으로써 여성 해방을 위한 실천적 저항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모성인데, 모성을 개별 신체의 요구에 따라 재디자인 함으로써 자연적이고 고유한 정서로서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모성을 재개념화 할 수 있다.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테크노페미니즘을 시도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모성은 “고통과 환희, 비애와 걱정, 적요와 소요, 야만과 영광”²⁵⁾의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모성은 다만 “체력”²⁶⁾으로 개념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품에서 바이오 테크노바디는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몸이며, 탈(脫)가부장적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해방적 몸이 된다.

III. ‘젠더’의 창조와 선택 가능성

1. ‘혼종적인 것’으로의 접속(connection)

슈테판 헤어브레히터(Stefan Herbrechter)는 인간 향상을 통해 완전함을 지향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을 경계하며 근대 휴머니즘을 극복하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도하는 것으로써 탈근대 휴머니즘을 재창조하는 ‘탈-인간-되기’를 주장한다. 또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간 중심, 정상성 중심의 ‘포스트휴먼-이즘’과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헤어브레히터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트-휴머니즘은 비인간적 존재와 인간의 친화적 공존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혼종적 인간을 제시함으로써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물질 간의 경계를 소멸하고 근대 휴머니즘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타자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25) 김하울, 앞의 책, 122쪽.

26) 김하울, 위의 책, 127쪽.

여성의 몸과 생식에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성의 현실적인 입장과 경험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국가의 생명정치는 여성의 몸과 재생산 노동에 직결되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이는 과학기술과 젠더 범주가 중첩적인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밀의 단편소설 〈로드킬〉은 재생산 노동과 관련하여 여성의 물리적인 몸에 가하는 국가의 물리적인 억압을 재현한다. 이 작품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혁신적인 발전을 계기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선택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시대이다. 즉 인구 재생산이라는, 목적론적이고 기능적인 몸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SF 문학으로서 이 작품은 유전적 향상 및 선별 등 과학기술과의 결합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향상성(enhancement)과 확장성(extension)을 새로운 주체성의 본질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향상된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새로운 젠더 가능성을 촉발한다. 그러나 그러한 과학기술의 혜택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생명과학 기술의 활용과 적용은 특정 부류의 인간에게 선택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젠더적 몸의 해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의 획득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경제적 빈곤이나 종교적 구속, 저개발 지역 등의 이유로 “진화에서 도태”²⁷⁾되는 부류가 생겨났다. 그나마 이들이 정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간 여자”²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은 “1급 보호대상 소수인종”으로 분류하고 인류 문명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인종으로 관리한다. 머지

27) 아밀, 〈로드킬〉, 『로드킬』, 비체, 2021, 13쪽.

28) 아밀, 위의 책, 13쪽.

않은 미래에는 멸종할 수도 있는 인종,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인종이기에 강제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사회적 배경은 트랜스휴머니즘에 기반한다. 여성의 삶과 정체성에 긴밀하게 적용되는 생명과학 기술은 여전히 소외를 양산하는 특권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작품에서 몸의 변형 또는 재구성이라는 선택권을 갖지 못한 여성은 여전히 자연적이고 성적이며 재생산의 도구적 몸으로 코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는 늘 희귀하고 신비로운 존재였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교육받았다. 다른 인간 여자들은 모두 편의와 힘을 위해서 자궁을 버리고, 유전자를 변형하고 줄기세포를 이식받고, 장기를 대체하고, 수명 연장 약을 투여받았다. 다른 인간 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딸들에게 새로운 유전자를 남겼고, 새롭게 진화한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은 달랐다. 그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거나, 어떤 오래된 종교적 도덕적 신념 때문에 그런 선택을 거부했거나, 또는 변방의 오지에서 과학적 기술을 접해보지도 못한 채 ‘자연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았다. 우리는 바로 그런 여자들의 딸이었다.

나는 가끔 진화한 여자들의 삶을 상상했다. 고통스러운 월경과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어디로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제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자기 몸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나는 다음 생에는 진화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소망했다. 하지만 먼 옛날에 멸종해버린, 우리보다도 더 일찍 도태된 초식동물 따위에 나 자신을 대입해본 적은 추호도 없었다. 여름의 취미는 내게 지나치게 병적으

로 느껴졌다.

(아밀, 〈로드킬〉, 23-24쪽.)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되는 ‘인간 여자’는 다양성을 위해 다시금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이다. 보편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주체성을 정초하고자 했던 포스트휴먼은 고정불변한 본성(nature)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변용하는 과정적인(process) 존재로서의 인간을 재현한다. 그런데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하고 재생산으로부터 해방된 여성의 변화된 삶의 방식은 결코 그 안에 편입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개체적 여성들이 새로운 구별 기준과 방법에 따라 나뉘고 다시금 소수자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유순한 몸’은 가부장제 생체권력을 자신의 몸으로 전유하는 몸주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몸이다. 보호소 내에서 재생산의 도구로 양육되는 소녀들의 몸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토대로 이원론적 경계를 넘어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생식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름 같은 여자애가 취향”이라는 남자는 여름을 이상적 아내로 선택한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 선정된 남자들이 소녀들 중에서 자신의 신붓감을 고르는 시스템과 그에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교사들은 “여자 인간”인 이들을 “인간도 아닌, 인간이 되다 만,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조잡하고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존재들”²⁹⁾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들의 보호와 사회화라는 과정은 국가의 인구 정책에 순순히 기여할 수 있는 몸으로의 성장이며 젠더 이데올로기의 내면화가 유일한 교육의 과정이 된다. ‘나’는 이러한 제도와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다시 딸을 낳아 이곳으로 보내

29) 아밀, 앞의 책, 38쪽.

게 되는 삶을 반복하기보다는 탈출함으로써 규정된 삶의 방식에 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의 저항적 행위는 자연과 교감하고 접속하는 ‘여름’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젠더 해체의 의미로 확장된다.

국가의 생명정치 권력에 따른 차별과 소외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혼종적 여성성이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계절의 이름”³⁰⁾을 가진 ‘여름’은 남성중심적이고 규범화된 젠더 이미지를 재현하는 외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조그맣고, 하얗고, 엉뚱하고, 가냘픈 여자 아이”³¹⁾로서 ‘유순한 몸’을 가진 그녀는 기술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역전되는 몸이기도 하다. 생명과학기술의 통제와 억압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여름’의 몸은 보호소를 둘러싸고 있는 뒷산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드러내보인다. “여름은 여름이라는 계절이 있었을 시절에 존재했던 동물들”³²⁾이 아직까지 지구상에 남아 있다고 믿었고, 뒷산 곳곳을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며 동물들의 흔적을 찾는다. ‘여름’은 자신이 탐색하는 모든 옛 멸종동물 중에서 고라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고라니는 여느 사슴과 달리 수컷임을 상징하는 뿔이 없다. 고라니는 유순하고 겁 많은 이미지와 달리 거칠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고, 주로 야밤중에 활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협적인 동물이다.³³⁾ 고라니에 대한 이와 같은 서술은 여름에 대한 이미지 재현과 일치한다. 작가는 고라니와 여름을 겹쳐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희귀하고 신비로운 존재로서 여름의 처지와 고라니가 비슷하기도 하거니와 그 이면에 이분법적 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위협적이라면 위협적인 동물”³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30) 아밀, 앞의 책, 9쪽.

31) 아밀, 위의 책, 38쪽.

32) 아밀, 위의 책, 10-11쪽.

33) 아밀, 위의 책, 22쪽 참조.

34) 아밀, 위의 책, 22-23쪽.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내 신경은 온통 여름의 손에 쏠려 있었다. 그 애의 피부는 부드럽고도 차가웠다. 신비롭도록 부드럽고, 신비롭도록 차가웠다. 먼 옛날 사계절이 남아 있던 시절, 늦여름 밤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한 줄기가 이렇까 싶었다. 이대로 손아귀로 움켜서 호주머니에 고이 숨겨두고 싶었다. 아무 데로도 못 달아나게.

(중략)

지난 며칠간 이상야릇하고 불가해하고 멀리 동떨어진 듯 보이기만 하던 여름의 표정이 처음으로 명쾌해 보였다. 불현듯 모든 게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온 세상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바람마저 잔잔해지는 것 같았다. 고양이와 토끼와 고라니와 비둘기와 까치와 올빼미가 우리의 대화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나는 맞잡은 여름의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여름아, 결혼하지 마. 나랑 같이 탈출하자.”

여름이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고여 있던 눈물이 뺨에 굴러떨어졌다. 나는 그 애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너 없인 못 떠나.”

(아밀, 〈로드킬〉, 43-44쪽)

이 작품에서 젠더 정체성의 선택은 정상으로 규범화된 것들과의 ‘차이’를 전제로 한 정치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임신이나 출산, 양육 등 자연적 ‘본성’이라는 허구로 억압되었던 젠더화된 여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름’은 비고정적존재, 혼종적이고(hybrid) 경계가 없는(boundless) 유동적인(liquid) 존재로서 자연에 감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대는 그동안 남근 중심으로 구성되고 확장되어온 사회 체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의 자유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혁명적인 시도가 된다. 특히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여름의 접속 능력은 이들의 혁명이 실현가능하도록

이끄는 원천이 된다. 자동 운전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자동차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하는 고속도로 앞에서 ‘보호소 탈출’이라는 이들의 혁명적 시도는 필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나 이들이 탈출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산기슭에서 나타난 고라니 무리였고, ‘나’와 달리 ‘여름’은 망설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고라니를 따랐다. 고라니의 “까맣고 또렷한 눈동자”는 “평온하고도 무감동한 눈길로” ‘나’와 ‘여름’을 관찰하며 이끌었다.³⁵⁾ ‘여름’이 확신에 찬 듯 고라니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자연과의 경계를 해체하고 접속하며 교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여름’의 여성 연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과학기술 또는 자연적인 것과의 혼종으로써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화시키며 억눌렸던 동성애적(homosexuality) 욕망을 과감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추동하는 힘이다.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통제하고 국가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여성의 출산을 강제하고 그 능력을 종속시키고자 하는 생명정치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혁명적인 새 인식론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작품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통해 혼종적인 몸으로 재구성되는 여성들, 그리고 다양한 개체와의 접속을 통해 생명 권력의 작동 방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들 간의 상호 보완 및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성의 다양성에 입각하여 젠더 개념, 나아가 젠더화된 주체의 개념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움직임, 남성성·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수행적 젠더는 젠더와 생물학적 성 모두가 인위적 구성물로서 고정되지 않은 것이며, 수행적으로 재정의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변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5) 아밀, 앞의 책, 53쪽.

2. 생물학적 조건들의 변형(transformation)

근대 이성은 여성의 몸을 생식과 관련하여 특징 짓고 규정함으로써 의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 신체에 대한 생의학적 연구들은 여성을 생식 도구화, 수단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여성의 생식 능력을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근대 이성의 이론적, 실험적 접근은 여성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푸코는 생의학적 지식으로써 통제되고 조절되는 생명의 문제가 신학이나 윤리학적 차원이 아닌, 바로 권력의 형식으로 작동된다고 하였다. 근대 이후, 생명의 문제가 정치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푸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장악하고 몸을 지배하는 것을 생명정치(biopolitics)라고 하였다. 생명정치의 두 가지 형태는 ‘규율’을 통해 신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인구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때 권력의 범위는 출생, 사망, 출산, 질병 등 인간의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³⁶⁾ 물론 생명정치에서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가장 강력한 통제가 가해지는 것은 바로 여성의 몸, 생식 가능한 몸이다.

이산화의 단편소설 〈아마존 몰리〉의 여성은 젠더 이후 세계의 창조물인 사이보그를 재현함으로써 근대적 이성에 대한 전복적 저항을 실현한다. 이 작품은 젠더 정체성의 의미가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 속에서 재생산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더이상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론적 보편 범주에 환원되지 않는 ‘유사 인간’(quasi-human), 모든 ‘차이’, 경계에서 ‘자유로운’ ‘사이보그’(cyborg)를 새로운 주체성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아마존 몰리’는 몸의 재형상화(refiguring), 나아가 재신체화(re-embodiment)로 탄생한다. ‘아마존 몰리’는 사이보그로서 정치적 의미를 체현한다. 그녀는 “순진하지 않은 몸, 낙원에서 태어나지 않

36) 이윤상, 「몸의 생의학적 의미와 생명정치」, 『철학논총』 62호, 새한철학회, 2010, 335-345쪽 참조.

은 몸”이고, “단일 정체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끝없는 적대적 이원론도 발생시키지 않는다.”³⁷⁾ 생의학적 지식을 적용한 몸, 다양한 방식의 실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젠더적 몸에서 탈신체화 되고, 단성생식의 몸으로 재신체화 된 테크노바디는 기술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 즉 테크노페미니즘적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젠더 역학과 상호구성하며 나아가 사회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생명과학 기술의 적용이 궁극적으로 성 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도발적인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계의 해체에 대한 해러웨이의 전략은 더이상 젠더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러웨이가 주장하는 사이보그는 혼종적 주체의 메타포가 된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사이 존재’를 통해서 고정적인 성별 ‘차이’ 경계를 가변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탈신체화와 재신체화가 교차하면서 진행된 젠더 규범의 해체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유지되어 온 강제적 이성애라는 이데올로기적 서사를 제거함으로써, 젠더 배치의 확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마존 물리, 학명 포에실리아 포르모사. 중남미 지역에 사는 작은 물고기로, 생김새는 평범하기 그지없지만 실제로는 자연계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생활상을 자랑한다.

전설 속의 아마존 부족에서 따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마존 물리는 종 전체가 암컷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수컷 아마존 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들의 번식은 단성 생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신비로운 진화의 결과물인지, 이들은 단성 생식 과정을 통제

37)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역, 동문선, 2002, 152쪽.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짜짓기 철이 되면 아마존 물리는 비슷한 종의 다른 수컷과 짜짓기를 한다. (중략) 이렇게 태어난 새끼들은 두 종 사이의 잡종이 아니다.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온 유전정보는 온데간데없이, 순수한 아마존 물리가 태어나는 것이다. (중략) 그러니 아마존 물리의 번식 과정에서 수컷은 단지 자극을 위해 이용당할 뿐이다. 생물학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은 오롯이 암컷만의 것이 된다.

인간도 이런 치사한 방법을 쓸 수만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까.

(이산화, 〈아마존 물리〉, 94-95쪽)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 Cyborg Manifesto」에서 사이보그를 모순되고 분열된 채로 세상과 연결된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우선, 사이보그가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이다.³⁸⁾ 해러웨이의 이같은 인식에 따르면 단성 생식으로 몸을 재구축한 여성 인물인 ‘아마존 물리’는 “양립 불가능한 요소들”을 생명과학 기술로써 인위적으로 구성한 사이보그라는 점에서 역시 모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마존 물리’가 된 여성 인물의 몸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배타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본질적 특성이라 여겨온 성정체성이나 젠더가 사실은 규범에 대한 ‘반복 복종’, 즉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수행적(performative)으로 형성된 것임을 반증하는 젠더 테크놀로지의 재현이다. 근대적 이성, 생명정치 권력으로부터 ‘특이성’으로 규정되어 타자화 되었던 여성의 몸은 스스로를 변형하고 탈구축시킴으로써 남성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전복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식에 관련된 여성의 특이성은 바로 여성의 신체이기 때문에 여성의 생물학적 조

38) 조윤경, 「포스트휴먼과 기술적 상상력」, 『기호학연구』 26호, 기호학연구, 2009, 123쪽.

건을 변형시키는 극단적인 상상력은 바로 여성 신체에 각인된 권력을 해체하고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저항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강제된’ 젠더 규범을 넘어, ‘자의적으로’ 자신의 젠더를 결정하고, 사랑에 빠지는 대상에 따라 그때마다 인위적으로 젠더를 변형함으로써 이성애중심주의를 넘어선 다양한 성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 재현된 “남성에게 생물학적으로 의존하지 않는”³⁹⁾, 기원도 목적도 없는 사이보그로서 여성 인물은 비로소 “젠더가 사라진 세계”에서 ‘포스트 젠더’(post-gender)⁴⁰⁾를 수행하는, 가변성을 가진 존재이자 ‘차이’의 영역이다. 단성 생식으로 변형 가능한 몸은 더 이상 고정되어 있는 생물학적 대상이 아니며 과학기술이 여성을 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테크노페미니즘을 실현한다.

와이즈먼의 주장에서와 같이 과학기술은 통제되거나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으로 여성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기술적 대상이 젠더의 이해관계 및 정체성에 작동하여 형성되거나 혹은 형성하는 방식들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아마존 물리’는 행위소(actant)⁴¹⁾가 된다. 기술과 사회가 상호 구성적이라는 시각에서 행위소는 사회 구조에 대한 고정된 개념을 교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사회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기술의 구성도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동적이고 연관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행위소

39) 이산화, 『아마존 물리, 『감겨진 눈 아래에』, 황금가지, 2019, 100쪽.

40) George Dvorsky:James Hughes, “Postgenderism:Beyond the Gender Binary”, *JEET White Paper* 03, Mar.20, 2008(이수안, 『테크노바디의 탈신체화와 재신체화에 대한 테크노페미니즘 분석』, 『탈경계 인문학』 28호, 이화인문과학원, 2020, 65쪽 재인용).

41) 주디 와이즈먼, 『테크노페미니즘』, 박진희 이현숙 옮김, 궁리, 2009, 65-67쪽.

로서 ‘아마존 물리’는 남성중심적 젠더 규범에서 필연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성적, 테크놀로지적 대상화로서의 여성을 단성생식이라는 ‘기괴한 몸’의 재현으로 전복한다. 언캐니(uncanny)한 여성성을 강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젠더 변형의 가능성 및 젠더 초월의 잠재성을 상상하게 한다. 물론 과학기술 자체가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변화시킨다거나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낙관론 내지는 기술결정론이라는 함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성 SF 문학에서는 과학기술이 젠더 문제와 결합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 즉 새로운 사회 구조를 논의할 수 있는 소통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 윤리적 실천을 위한 대안적 미래

본고는 과학기술을 통한 여성 신체의 확장과 향상, 그리고 변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몸은 사회적, 과학적, 경제적 관계 안에서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며 행동하는 그 자체로서의 몸이다. 몸은 인간의 의식과 지향성과 행동의 근원인 것이다. 여성 SF 문학은 과학기술과 여성의 몸에 대한 상상력으로써 수행적 젠더를 실천한다. 여성 SF 문학에서 여성의 몸은 인간이 세계를 지향하고 세계를 수용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상상으로써 구현한다. 이들 작품에서 몸은 정보로 변환되거나 기술과 결합하고, 자연과 교감하거나, 스스로 변형되었다. 〈관내 분실〉, 〈마더 메이킹〉, 〈로드킬〉, 〈아마존 물리〉에서 과학기술과 젠더의 결합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폭넓게 개입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주지하듯이, 이른바 정보와 GNR⁽⁴²⁾ 기술의 발전으로써 새로운 인간과 주체성이 모색되

고 탄생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소수자와 그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은 지속되고 있다. 〈관내 분실〉 〈마더 메이킹〉 〈로드킬〉 〈아마존 몰리〉에서의 사회 구조는 여성과 모성, 여성과 생식, 여성과 젠더에 대한 모순적인 인식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김초엽의 소설 〈관내 분실〉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집 안에 갇혀 사회로부터 축출된 여성이 탈신체화의 방식으로써 여성의 ‘상징적 소멸’을 재현한다. 임신과 출산을 예비하는 여성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신과 출산에 집중하는 여성은 사회에서 도태된다. 김초엽은 배제와 소외로써 탈신체화 된 다양하고 수많은 여성 정체성의 존재를 가시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김하울의 소설 〈마더 메이킹〉에서, 여전히 여성과 모성은 사회적 타자로서 존재하며 소수자가 된다. 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은 오직 여성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반복한다. 여성과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만으로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밀의 소설 〈로드킬〉에서는 재생산의 도구, 수단으로 강화된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을 볼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과 기술의 접촉에서 배제되는 여성의 존재 가능성을 살피고, 소수자에 대한 강력한 통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재현한다. 또한 자연물과의 교감으로써 사이보그적 주체성을 발현하는 여성인물이 생명정치 권력으로 작동하는 기술과학의 모순과 한계를 횡단하는 것으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실현한다. 이산화의 소설 〈아마존 몰리〉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이 여성의 전복적인 사고로써 여성 해

42) 유전자공학(Genetic engineering), 나노기술(Nano-technology), 로봇공학(Robotics).

방의 목적으로 전유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아마존 물리〉는 스스로 소수자 되기를 실현하는 여성 인물로써 국가의 생명 통치 권력을 전복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포스트휴먼 주체는 과학과 결탁해 온, 여성과 생식에 대한 남성중심적 사유를 생명 과학 기술로써 내파(內波)한다. 특히 「아마존 물리」에서는 성적 ‘차이’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으로 재현한다.

이와 같은 여성 SF 문학의 도전적이고 전복적인 상상력은 소수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성찰을 제기한다. 이들 작품에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사이보그를 ‘코드화’ 함으로써 스스로 사이보그의 정치학을 구현하는 인물들이다. 여성 SF 문학이 상상하는 세계는 여성과 모성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이고, 젠더에 대한 차별과 억압, 종속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여성과 젠더라는 소수자성에 대한 SF 문학의 전복적 저항은 곧 테크노피아에 대한 상상력으로 구현된다. 소수자문학으로서 여성 SF 문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SF 문학의 테크노피아는 과학기술을 통한 신체의 확장과 향상, 그리고 변형을 통해서 젠더 혁신을 구현되었다. ‘젠더 혁신(gender innovation)’이란 개인, 문화, 그리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젠더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성취한 내용의 변화를 가리킨다. 그것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주제,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기술 시스템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⁴³⁾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인간의 위상에 존엄과 품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43) 이수안, 앞의 책, 160쪽.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초엽, 〈관내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김하울, 〈마더 메이킹〉, 『우리가 먼저 가 볼게요』, 에디토리얼, 2019.

아 밀, 〈로드킬〉, 『로드킬』, 비체, 2021.

이산화, 〈아마존 물리〉, 『감겨진 눈 아래에』, 황금가지, 2019.

2. 논문과 단행본

고장원, 『SF란 무엇인가』, 부크크, 2015.

———,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 케포이북스, 2016.

김문조, 「감각과 사회 : 시각 및 촉각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한국영상문화학회, 2011, 7-31쪽.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 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5쪽.

김영찬, 「2000년대, 한국문학을 위한 비판적 단상」,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 2005.9, 297-314쪽.

김윤정, 「LGBT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바디의 상상력과 수행성」, 『이화어문논집』 제48호, 이화어문학회, 2019, 73-100쪽.

———, 「테크노사피엔스(Technosapience)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 - 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65호, 우리문화회, 2020, 7-36쪽.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아카넷, 2017.

김형중, 「병든 신, 윈도즈Windows 속의 영웅」,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문학과지성사, 2013.

노대원, 「한국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 『비교한국학』 23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333-360쪽.

———, 「포스트휴머니즘 비평과 SF - 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 『비평문학』 6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8, 110-133쪽.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역, 동문선, 2002.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역, 민음사, 1995.

박인성, 「다형장르로서의 SF와 SF 연구의 뒤늦은 첫걸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

- 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289-298쪽.
-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7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0-153쪽.
- 윤조원,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9, 131-154쪽.
-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 김경례 옮김, 아르케, 2012.
- 이수안, 『테크노 문화풍경과 호모 센수스』, 북코리아, 2018.
- _____, 「테크노바디의 탈신체화와 재신체화에 대한 테크노페미니즘 분석」, 『탈경계 인문학』 28호, 이화인문과학원, 2020, 61-89쪽.
- 이을상, 「몸의 생의학적 의미와 생명정치」, 『철학논총』 제62호, 새한철학회, 2010, 335-358쪽.
- 이지연, 「과학기술에서 젠더와 몸 정치의 문제,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7호, 한국여성철학회, 2012, 97-121쪽.
-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모음』 42호, 자음과모음, 2019, 46-58쪽.
-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역, 인간사랑, 2010.
- 정은경, 「SF와 젠더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42호, 자음과모음, 2019, 22-35쪽.
- 조윤경, 「포스트휴먼과 기술적 상상력」, 『기호학연구』 26호, 기호학연구, 2009, 59-82쪽.
- 주디 와이즈먼, 『테크노페미니즘』, 박진희 이현숙 옮김, 궁리, 2009.
- 캐서린 해일즈,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허진 역, 플래닛, 2013.

여성 SF 소설의 테크노피아와 소수자 문학

김윤정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 SF 문학에 재현된 젠더 혁신적 여성 주체를 분석하고 이들이 소수자로서의 자기를 재의미화하는 양상과 재구성하는 방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된 기술 과학 시대의 윤리적 공동체를 ‘테크노피아’라고 명명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본질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반성과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여성 SF 문학은 테크노피아의 재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의 윤리적 실천을 위한 대안적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여성 SF 작품에서 사이보그 여성 주체는 인간과 로봇, 남성과 여성,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와 구분을 넘나들면서 이분법적 젠더 체계를 내파하는 허구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실재이다. 여성 SF 문학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신체를 초월하게 되는 사이보그 여성 주체는 ‘여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탈피함으로써 동시에 타자, 객체라는 소외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포스트바디로써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는 기능적 향상과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한다. 아울러 여성 SF 문학에서 하이테크놀로지는 유기체적 몸을 기술적으로 변형, 개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젠더 역시 재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한다. 그러나 여성 SF 문학의 테크노피아는 기술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 생명 정치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세계라면, 여성의 몸은 구성적 소외로써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여성 SF 작가의 글쓰기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며 실천적 참여이다. 그들의 테크노피아가 시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윤리적 성찰과 대안적 미래의 구상은 현대 사회의 독자들에게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학적 소명을 충실히 따른다고 하겠다.

핵심어 : 여성 SF 소설, 젠더,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머니즘, 소수자문학

Technopia of Feminist SF Novel and Minority Literature

Kim, Youn-ju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gender-innovative female subject represented in the SF literature by Korean women and impart the meaning to the way they re-signify and reconstruct themselves as minorities. In this research, an ethical community of the advanced technological era is called 'Technopia'. Assuming posthumanism essentially calls for introspection on postmodernism and reflection on humanism, it may be said that feminist SF literature is the thing to actively conceive the alternative future for the ethical practice of posthumanism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Technopia.

Posthumanism of the feminist SF literature is embodied by 'talking' to minorities. Rather than objectifying minorities, their lives are represented by true 'talking' where they are recognized as the subject and their specific histories and situations are understood. So to speak, in the recent feminist SF literature, the subject of 'cyborg-becoming' attempts new reflection on what life is. It allows minorities culturally otherized to construct their place and makes their lives a narrative so shows

the relationship,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with minorities. It calls anthropocentrism into question and imagines not humans as a single specified being but humans as the world where different identities are embodied.

Firstly, in the feminist SF literature, the female cyborg subject transcending a female biological body can escape from the alienation as the other and the object by breaking away from the common concept of a 'woman'. In addition, as a postbody, it achieves a dream of life prolongation with the functional improvement to go beyond the human biological limits. However, Technopia in the feminist SF literature is warning that a female body is still forced to remain a serious social issue through the structural alienation unless changes in the relations with others and machines are presupposed. Finally, in the feminist SF literature, high technology is transforming and adapting an organic body technically and it results in reconstruction of gender. In the recent feminist SF works, female cyborg subject is both fictional product and social reality that is crossing the boundaries and divisions between human and robot, male and female, and heterosexual and homosexual and making the dichotomous gender system imploded.

Writing by female SF writers is the responsibility for a community and practical engagement. A new way of ethical reflection and conception of the alternative future attempted by their Technopia faithfully follows the literary calling to present

a direction of life to readers in a modern society.

Key-words : Feminist science fiction, Gender, Post-human, Post-humanism, Minority Literature

이 논문은 2021년 8월 30일에 접수되었으며,
2021년 9월 19일에 심사를 거쳐 2021년 9월 3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